글로벌가치투자연구회 GLOBAL VALUE INVESTMEN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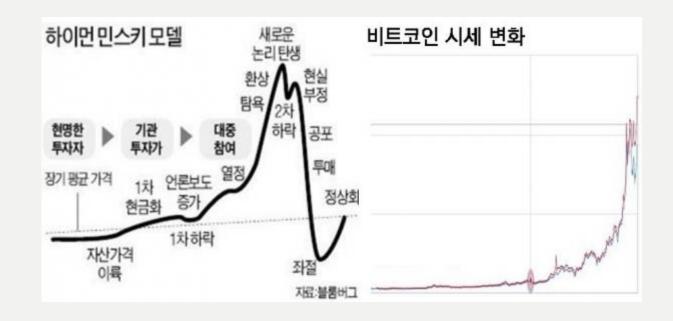
2018년 2학기 22기 활동계획

- 은행, 증권사, 선물사, 일부 보험사, 자산운용사 등을 금융회사라 함

- 이들은 크게 지원, 영업, 운용으로 나뉘어짐
 - 간단하게 설명해서...
 - 지원은 기획, 회계, 인사 등을 해서 금융회사 내부를 관리하는 일을 함. 우리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기 획하고, 회사에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자금 사정이 어떤가를 파악하고, 회사 사람들 중 잘한 사람은 인센티 브를 주는 등의 일을 하는 것임
 - 영업은 고객에게서 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상품 홍보, 설명을 하는 일을 함
 - 운용은 영업으로 조달된 고객 돈을 받아 수익을 내는 투자를 함
 - 지원, 영업, 운용의 비중은 은행, 증권사, 선물사 등 회사 형태에 따라 달라짐

- 동아리에서 지원, 영업, 운용을 한다는 것은...

- 지원을 한다는 것은 '효과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법을 생각하기/공부해서 소개하기'.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기획, 회계, 인사 등을 할 수 있을까? 어느 회사이던 기획, 회계,인사 등에서 다를 바가 없고, 투자할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반드시 파악해야 함!
- 동아리 내 고객은 없으니 영업은 할 수 없지만, '효과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/공부할래!' 라 고 말씀하신다면야 당연히 하셔도 좋음! 알아 두면 어딘가 도움이 되겠지!
- 운영을 한다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...??



← 모델에 따라 시세가 변화한다면, 이대로 타이밍을 봐서 투자하는 방법 연구?

- -저번 리쿠르팅 설명회 때 자료에서 '연구' 파트를 참고해서 준비
- -그래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? <u>이번 주 내로 팁을 드립니다!</u>
- -굳이 혼자 할 필요 없이 같이 팀을 꾸려서 하셔도 좋음! 물론 팀플이 적성에 맞다면야...

- 자신이 지원, 운용을 하는 방법을 모든 동아리원에게 소개

- 다른 사람의 방법을 두루 알면 당연히 도움이 됨! 저 방법이 내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생각해보자
- 소개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고하는지 생각해보자, 이에 대한 교훈을 얻어보자

- 소개된 방법을 바탕으로 모의투자를 함

- 다만 모의투자와 실제 투자는 차이가 있으므로, 차이가 있으면 왜 있는지 생각해보기
- 어디에 투자할 지는 자기 마음이지만, 수익률은 GVI 전체로 내므로 서로서로 다른 사람의 판단에 대해 이견을 낼 수 있음
- 일반적으로 이견이 모여 더 좋은 결론을 내므로 적극적으로 참가하기!



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실제로 하고 계시는 훌륭하신 분들의 모습→

- *잠깐만*!

- 지금까지의 내용에서 추가할 내용이...
- 일주일 한 번 모여서 활동
- 활동 전까지 자기 방법을 소개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데,
 - 활동 첫 주에 지원, 운용 중 하나를 선택하고, 세부 방법을 생각해 소개
 - 그 다음 주부터 이전에 소개한 내용에 새로운 내용을 덧붙여 준비
 - 아니면 지원을 선택했다가 운용을 선택하거나, 운용을 선택했다가 지원을 선택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음
 -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 수준으로 준비. 인공지능 설명하는데 프로그램 코드로 설명할 수 없지만, 수식을 들어 설 명할 수 있음
 - 아니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끼리 전문적인 소모임을 만드는 것도 가능
 - 준비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마무리가 미비하다? 아직은 잘 몰라서 내용이 미비하다? 그럼 그 때까지의 과정을 소개하 자! 거기에도 배울 점은 있음!
 - 자료는 워드/프레젠테이션으로 간략하게 준비! 형식보다는 내용에 집중하자!

- 자기 방법을 소개할 때,
 - 발표하듯이 딱딱하게 하지 말기. 다들 발표하는 분위기에 덜덜 떨더라...
 - 친구와 대화하듯이 편안히 소개하자!

- 부담 없이 길게 활동하자!
 - · '일주일 두 번 하고, 준비도 해야 하고, 들어와 보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, ... 이러니 사람이 남아 나겠어요?' 전 기수 회원 중 한 명이
 - 이 때문에 일부러 로드(load)가 적으면서도, 자유롭게, 그러면서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활동을 설계
 - 로드도 적으니 길게 동아리에 남아서 할 만 하고, 많은 시간을 들이면 실력은 자연스럽게 향상됨!
- 결석, 준비 안 함은 자기 자유지만, 회비 내고 들인 시간도 있고 하는데 굳이 손해볼 이유가...?
 - 참석 촉진을 위해 홈커밍데이 참석은 한 학기 2/3 이상 활동한 멤버에 대해 해당
 - 다만 이번 학기에 2/3 이상 활동하지 못했다면, 다음 학기이건, 다다음 학기이건 졸업 이전에 나머지 기간을 활동하면 달성한 것으로 간주